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및 교육요구도 차이 분석

An Analysis on Differences between Freshmen and The Other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김현순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Hyun-Soon Kim(khsbcr@dankook.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 검증을 통해 진로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두 집단 간의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대학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362명의 교육요구를 조사·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개발역량의 중요도 인식에서 재학생은 신입생에 비해 경력개발이나 직업정보탐색 역량보다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과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역량을 더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진로개발역량의 보유도 차이 비교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뿐이었다. 셋째,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역량은 두 집단 모두 경력개발이었으며 그 다음이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순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순위로 진로계획수립은 신입생에서는 5위였으나 재학생에서는 6위였고,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은 신입생에서는 6위였으나 재학생에서는 5위였다. 넷째,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통해, 신입생 때는 긍정적 자아개념형성과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더 효과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신입생 | 진로개발역량 | 교육요구도 | Borich 계수 | The Locus for Focus 모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freshmen and the other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To achieve this, the survey was carried out and 362 undergraduates participated. The findings of the survey we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perceived that effec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ositive self-concept formation were more needed. Second, only the positive self-concept form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ird, the rating of the educational needs was identical from the first place to the fourth, but different from the fifth to the sixth. Fourth, by the Locus for Focus model, more information was identified about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develop the career education programs.

■ keyword : | Freshmen |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 Educational Needs | Borich Calculation | The Locus for Focus Model |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29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31일

교신저자 : 김현순, e-mail : khsbcr@dankook.ac.kr

I. 서론

대학 시절은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진로 실행 직전의 시기로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여 원하는 진로를 획득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기이다[1].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청년 노동시장의 악화 등으로 진로결정 및 취업 준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진로 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2][3].

이에 정부는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취업 지원관 파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등을 실시하고, 대학에 ‘종합 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등 대학의 진로개발 및 취업 지원 기능의 확대를 요구하였다[4].

따라서 대학들은 2000년대 초반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진로교육을 확대·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진로교육은 초기에는 주로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추세이다[5]. 정규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성되는 진로 교육 교과목은 교양 필수 또는 선택 교과목의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목으로서의 진로교육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점화 되므로 진로발달에 보다 효과적이다[6].

진로교과목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7]에 의하면 진로교육은 진로발달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역량기반 진로교과목 운영이 부분적으로 진로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8]와 대학생을 위해 개발된 진로 교육 교과목이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9]는 대학 진로교육, 특히 진로교과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반면에 전국의 4년제 대학교 4,18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역량을 자기관리역량, 학업역량, 진로·직업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으로 나누어 조사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10]는 진로·직업 역량이 대학생 역량 5개 영역 중 4위이고, 직업수행역량은 17개의 소영역 중에 가장 낮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대학생의 구직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김성남과 변

정현의 연구[4]에서도 대학생, 취업담당관 및 인사담당자 모두가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진로교육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은 효율적인 진로교육의 계획·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설계와 진로·직업탐색 교육의 효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교육의 목적은 진로개발역량의 제고이므로[11], 진로교육이 효과적이었다면 진로개발역량이 증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진로개발역량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진로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신입생이란 대학에서 ‘아직 진로교육을 받지 않은 1학년 학생’으로, 재학생은 ‘정규진로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수강하였고 기타 각종 진로관련 교과를 수강하거나 비교과활동을 통해 진로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던 2학년 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으로 정의한다.

대학 진로교육이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적용하기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2], 기존의 진로교과목을 개발하는 연구들[13-15]은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교과목을 개발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입생과 재학생의 교육요구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밝혀 집단 별로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진로교육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개발역량 중요도 인식은 신입생과 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진로개발역량 보유도 인식은 신입생과 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진로개발역량 교육요구도는 신입생과

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개발역량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은 진로개발과 역량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역량’과 ‘개발’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역량이란 업무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으로[16], 직업사회에서 전통적인 학문적 적성과 지식내용을 평가한 시험이 직업수행이나 성공적인 삶을 예언하지 못하자 지능 대신 역량을 측정하게 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직업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역량의 개념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중심(knowledge - centered)에서 역량기반(competency -based)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역량 중심 진로교육의 목표는 단편적인 정보의 획득이나 일회성의 진로결정에서 그치지 않는 학생의 행동, 가치, 그리고 태도 전반에 걸친 변화이다. 다시 말해, 역량 중심 진로교육은 다양한 분야에 전이 가능한 능력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이란 한 개인이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경험을 선택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1].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자기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나가야 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계별로 나누어진 과업이 아닌 평생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킬 역량이다. 진로개발역량이란 그런 맥락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자기주도성과 전이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개발역량은 다양한 직업과 삶의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이라는 면에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이라 정의될 수 있으며,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학습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라는 점에서 메타역량(meta competencies)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17]. 최근 청소년들에게 진로개발역량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진로장벽과 장애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이 되고, 진로개발의 다양한 상황에서 ‘전이 가능한 능력’으로 발휘되기 때문이다[18].

진로개발역량의 구성 요인에 관해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나 정재원[19]는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에 대한 지식, 정보 활용,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태도, 가치, 성향 등으로 그리고 임언[11]은 ‘개인적 사회적 발달’, ‘진로관리’, ‘교육적 성취 및 평생학습’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조사 IV’에서는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이해’와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뜻하는 ‘진로·직업지식’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진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를 의미하는 ‘합리적 의사결정’[20]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대학 진로교육이 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과 차별화되지 않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학 진로교육이 자기이해부터 은퇴준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진로발달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을 기존의 일반적인 범주인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의 분류[20]를 넘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을 강조하여 ‘경력개발’, ‘진로계획수립’,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직업정보탐색’,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경력전환기술’로 구성하였다.

2. 대학생의 진로역량개발 요구

대학생 시기는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둔 전환기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진로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

서 대학은 마지막 정규교육기관으로서 진로 전환기의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개발을 지원해야할 책무가 있다[21][22].

대학 진로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역량에 대한 기대수준과 현재수준에 대한 격차를 기준으로 교육요구도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과정을 개발 또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23]. 또한 집단 간의 교육요구도 분석은 집단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 교육 내용과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진로교육요구도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김경화[24]와 정은이[12]는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요구를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해야할 역량과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는데, 대학생들은 취업준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진로개발역량에 교육요구가 집중되었으며, 삶의 전반적인 생활의 의미를 정립하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기초가 되는 항목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24]. 대학생의 진로 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12]에서 진로 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 외국어 능력, 전공 능력 및 기술, 전공 지식, 상황대처 능력 등의 순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이들의 연구는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특성은 다양하나 본 연구의 주제인 학년별로 교육요구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위한 교육요구를 분석하고 교육요구도에서 학년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박가열의 연구[25]는 대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고학년은 취업에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의 면접이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과 같은 구직기술에 대한 교육 요구가 우선한 반면에, 저학년의 경우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 준비,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기초 직무능력과 같이 장기간의 준비가 요구되는 진로개발 역

량에 대한 교육 요구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구직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26]에서 연구자는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학생들을 저학년, 고학년으로 분류하여 우선 개발할 역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이 연구에 의하면 저학년 학생(1~2학년)은 구직역량 필요수준에 대해 자기이해, 도전정신, 구직희망분야 이해, 구직의사소통능력, 긍정적 가치관 등의 하위역량을 높게 인식한 반면, 고학년 학생(3~4학년)은 구직역량 필요수준에 대해 구직희망분야, 도전정신,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긍정적 가치관, 구직의사소통능력 등의 하위역량을 높게 인식하였다.

사범대학생의 교수자 역량을 기본역량과 실천역량으로 구분하여 교수자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에서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본 연구 결과[27]에 의하면, 중요도 측면에서는 기본 소양 영역에서 차이는 없었으나, 실천영역에서는 영역에 따라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보유도 측면에서도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중요도 측면에서 1학년에 비해 3, 4학년이 학습자와의 관계형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육봉사와 교육실습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와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해 가는 과정으로 평가된다[28].

예비 유아 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29]에 의하면 교직인성 및 전문성 개발 역량에 대하여는 학년별 교육요구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자 이해 역량과 교육과정 운영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낮아지는 반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정보화 역량 및 학급운영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 유아 교사 핵심 역량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노은호의 연구[30]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역량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지식영역에서 1학년과 4학년 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대학교 학생 362명이다. D대학교는 2012년부터 ‘진로설계와 자기개발’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신입생에게 교양필수로 이수도록 하고 있는데, 2016년도 1학기에 교재 내용 개편을 위한 사전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400명의 학생들에게 실시되었고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36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는데, 조사 시기는 신입생은 2015년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재학생은 2015년도 9월 1일부터 25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140명(38.7%)이고 여학생은 222명(61.3%)이며, 소속 대학별로는 외국어대학 82명(22.7%), 공공인재대학 40명(11.0%), 사범대학 42명(11.6%), 경상대학 34명(9.4%), 자연과학대학 35명(9.7%), 융합과학대학 52명(14.4%), 생명자원과학대학 46명(12.7%), 예술대학 18명(5.0%), 스포츠과학대학 13명(3.6%)이다. 본 연구의 분석 집단인 신입생 집단은 150명(41.4%)이고 재학생 집단은 212명(58.6%)이다. D 대학에서는 1학년 모든 학생에게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교양필수 과목으로 진로과목을 수강하게 하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진로교과목을 이수하기 전 학생들이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를 측정하고 교육요구도를 산출하기 위한 도구로 김현순과 김지효[31]가 개발한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인식 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진생애적 관점에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추출한 것으로 ‘경력개발’, ‘진로계획수립’,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직업정보탐색’,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경력전환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각 역량별 Cronbach' α 는 .834~.902이다.

3. 자료 분석

신입생과 재학생 간에 진로개발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진로개발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SPSS 23을 사용하였다.

셋째,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Borich 요구도 분석[32],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였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결과는 중요도 수준과 보유도 수준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두 수준 평균사이의 단순 차이만을 고려할 뿐 차이의 중요도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33]. Borich 요구도 분석은 중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t-test의 단점인 두 수준 간의 단순차이 비교를 극복할 수 있다[33]. 하지만 Borich 요구 분석은 각 역량들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데 유용하지만 각 요구들에 대한 해석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orich 요구도 분석과 함께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사용하였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좌표평면을 이용한 우선순위 결정 요구 분석 기법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우선순위를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34]. The Locus for Focus 모델 방법은 중요도의 값을 가로축으로 하고, 중요도 수준과 보유도 수준의 차이 값을 세로축으로 하여 4분면을 구성하고, 각 항목별 분석 결과를 좌표평면 상에 표기하므로 각 역량이 4분면 중 어느 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교육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1사분면은 중요도 수준이 평균값보다 높고 두 수준의 차이 값 역시 평균보다 높은 HH 분면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3사분면은 중요도 수준 값이 평균보다 낮고 두 수준의 차이 값 역시 평균보다 낮은 LL 분면으로 우선순위 고려 대상에서 배제 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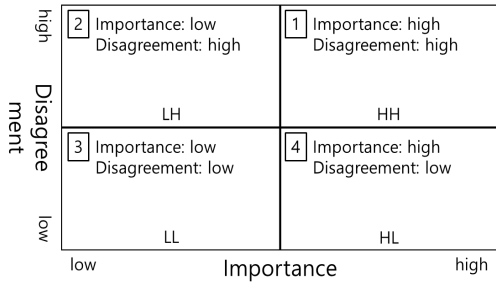


그림 1. The Locus for Focus 모델

IV. 연구결과

1.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진로개발역량 인식 차이 분석

1.1 집단 간 중요도 인식 차이 분석

신입생 집단과 재학생 집단 간에 진로개발역량의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1. 집단 간 중요도 인식 차이

역량	신입생		재학생		t
	M(SD)	순위	M(SD)	순위	
경력개발	4.08(.66)	1	4.11(.70)	4	-.46
계획수립	3.67(.73)	6	3.81(.67)	6	-1.93
대인관계	3.82(1.01)	4	4.19(.78)	1	-3.75***
정보탐색	4.00(.73)	2	4.13(.76)	3	-1.60
자아개념	3.85(.76)	3	4.14(.75)	2	-3.43**
경력전환	3.82(.85)	4	3.92(.83)	5	-1.15

p<.01, * p<.001

진로개발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차이를 비교해보면 재학생은 신입생에 비해 모든 역량에서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영역($t=-3.75, p<.001$)과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영역($t=-3.4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개발역량의 중요도 인식 순위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신입생은 경력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이 직업정보탐색,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경력

전환기술,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경력전환기술과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은 같은 순위), 진로계획수립 순인 반면, 재학생은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이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직업정보탐색, 경력개발, 경력전환기술, 진로계획수립 순이었다.

1.2 집단 간 보유도 인식 차이 분석

신입생 집단과 재학생 집단 간에 진로개발역량의 보유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의 보유도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차이를 비교해 보면 재학생은 신입생에 비해 경력전환기술을 제외한 모든 역량에서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역량은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뿐이었다($t=-2.05, p<.05$).

집단 간의 진로개발역량의 보유도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량 보유도 순위는 학년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학생들은 신입생이나 재학생 모두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역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그 다음이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진로계획수립,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 경력개발 순이었다.

표 2. 집단 간 보유도 인식 차이

역량	신입생		재학생		t
	M(SD)	순위	M(SD)	순위	
경력개발	2.80(.67)	6	2.89(.76)	6	-1.24
계획수립	3.14(.65)	3	3.18(.67)	3	-.56
대인관계	3.48(.72)	1	3.59(.70)	1	-1.47
정보탐색	3.00(.66)	4	3.08(.79)	4	-.94
자아개념	3.32(.74)	2	3.48(.73)	2	-2.05*
경력전환	2.96(.80)	5	2.93(.81)	5	.31

*p<.05

2.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교육요구도 차이 분석

2.1 집단 간 중요도와 보유도의 인식 차이 분석

신입생과 재학생 집단 간의 교육요구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진로개발역량의 중요도 인식과 보유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신입생 집단과 재학생 집단 각각에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 집단 간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 차이

역량	신입생			재학생		
	중요도	보유도	t	중요도	보유도	t
경력 개발	4.08 (.66)	2.80 (.67)	15.46***	4.11 (.70)	2.89 (.76)	16.24***
계획 수립	3.67 (.73)	3.14 (.65)	6.36***	3.81 (.67)	3.18 (.67)	10.09***
대인 관계	3.82 (1.01)	3.48 (.72)	3.13**	4.19 (.78)	3.59 (.70)	8.67***
정보 탐색	4.00 (.73)	3.00 (.66)	1.878***	4.13 (.76)	3.08 (.79)	13.83***
자아 개념	3.85 (.76)	3.32 (.74)	6.28***	4.14 (.75)	3.48 (.73)	10.35***
경력 전환	3.82 (.85)	2.96 (.80)	8.56***	3.92 (.83)	2.93 (.81)	13.15***

*** p<.001

신입생 집단의 중요도 인식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보유도 인식 수준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재학생 집단의 중요도 인식 수준도 모든 영역에서 보유도 인식 수준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로써 대학생 모두가 진로개발역량의 모든 영역에서 그 역량의 중요도에 비해 자신이 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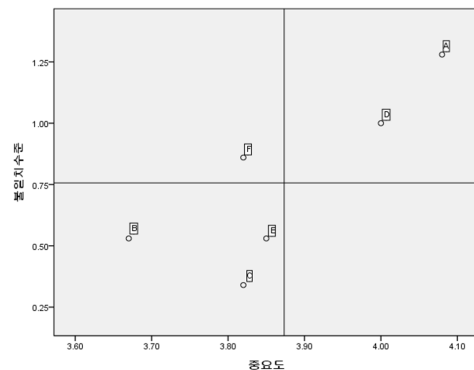
2.2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한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교육요구도 차이 분석

신입생과 재학생 간에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Borich 계수를 산출하여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교육요구도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표 4. 집단 간 교육요구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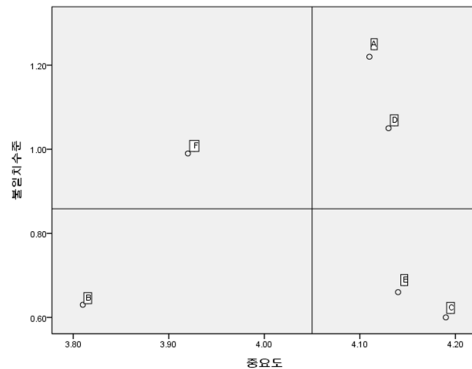
역량	신입생			재학생		
	Borich		Locus for Focus	Borich		Locus for Focus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경력개발	5.23	1	HH	5.00	1	HH
계획수립	1.94	5	LL	2.39	6	LL
대인관계	1.29	6	LL	2.51	5	HL
정보탐색	3.96	2	HH	4.37	2	HH
자아개념	2.08	4	LL	2.69	4	HL
경력전환	3.26	3	LH	3.89	3	LH

먼저 Borich 계수를 살펴보면 신입생 집단과 재학생 집단 모두에서 Borich 계수가 양의 값을 보여, 두 집단 모두 역량의 중요성에 비해 자신이 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Borich 계수를 비교해 보면 경력개발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재학생의 Borich 계수 값이 신입생의 Borich 계수 값보다 커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경력개발 B. 진로계획수립 C.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D. 직업정보 탐색 E. 긍정적인 자아개념형성 F. 경력전환기술

그림 2. 신입생의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



A. 경력개발 B. 진로계획수립 C.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D. 직업정보 탐색 E. 긍정적인 자아개념형성 F. 경력전환기술

그림 3. 재학생의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

Borich 계수를 통해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역량은 경력개발이었으며 그 다음이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

술,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순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순위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 진로계획수립은 신입생에서는 5위였으나 재학생에서는 6위였고,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은 신입생에서는 6위였으나 재학생에서는 5위였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학년에 따른 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사분면에 표시하여 보니, 신입생의 경우 교육우선 순위가 높은 1사분면에는 경력개발과 정보탐색, 2사분면에는 경력전환이 위치해 있고, 교육 우선순위 고려 대상에서 배제 되는 3사분면에는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진로계획수립,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이 있었다. 하지만 재학생의 경우 1사분면에는 경력개발과 정보탐색, 2사분면에는 경력전환이 위치해 있어 신입생의 경우와 같았으나 교육 우선순위 고려 대상에서 배제 되는 3사분면에 있던 긍정적 자아개념형성과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이 4사분면에 있어 신입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받기 전인 신입생과 진로관련 정규 교과목 이수와 비교과활동을 통해 진로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 간에 진로개발역량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진로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다름을 알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과 재학생 간에는 진로개발역량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보여, 재학생은 신입생에 비해 모든 역량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였는데 특히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과 긍정적 자아개념형성의 중요도 인식은 신입생의 인식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은 신입생에서는 공동 4위였으나 재학생에서는 1위였고, 긍정적 자아개념형성도 신입생에서는 3위였으나 재학생에서는 2위였다. 즉, 재학생은 신입생에 비해 진로와 관련된 역량으로 경력개발이나 직업정보탐색 같은 역량보다 효과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같은 정적 역량을 더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을 중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범대 3,4 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에 비해 학습자와의 관계형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이현우와 조명희의 연구결과[27]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대학생 구직역량 필요수준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에서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능력과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이진남의 연구결과[25]와도 일치한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고교와는 달리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요구하는 대학생 생활 경험과 직·간접적인 진로 체험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자기관리와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둘째, 진로개발역량 보유도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차이를 비교해보면 재학생은 신입생에 비해 경력전환기술을 제외한 모든 역량에서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뿐이었다. 진로개발역량 보유도 인식 순위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 모두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 역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그 다음이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진로계획수립,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 경력개발 순이었다.

이처럼 두 집단 간에 진로역량 보유도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인식의 유무에 따라[31], 진로결정 상태에 따라[35] 대부분의 역량 보유도에 차이를 보였던 연구 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진로교육을 받기 전인 신입생과 진로교과를 수강하였고 기타 비교과과정을 이수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재학생 간에 진로개발역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진로교육의 효과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과개설의 의도와는 달리 진로교과의 교육 효과가 크지 않거나 그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 기대와는 달리 재학생들이 비교과 진로교육에 잘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교육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신입생 집단과 재학생 집단 각각의 진로개발역량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진로개발역량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도가 보유도 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런 결과는 김경화[24]와 이정은과 김현순[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은 자신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진로개발역량이 대학생에게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Borich 계수를 통해 교육요구도를 확인한 결과 경력개발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재학생의 교육요구도가 신입생의 교육요구도보다 커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을 더 절실히 요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요구도 순위는 두 집단 모두 가장 순위가 높은 역량은 경력개발이었으며 그 다음이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순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순위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 진로계획수립은 신입생에서는 5위였으나 재학생에서는 6위였고,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은 신입생에서는 6위였으나 재학생에서는 5위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보다는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역량개발에 맞춰지기를 바란다는 황매향 등의 연구[37]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대학의 진로교육은 단순한 자기이해 및 진로정보 탐색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인 진로준비행동인 경력개발과 진로정보탐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요구도에 대한 더 실제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신입생 집단과 재학생 집단의 교육요구도를 사분면에 표시하여 보니, 신입생의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진로계획수립,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은 모두 교육 우선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 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에 재학생의 경우는 진로계획수립은 여전히 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었으

나 긍정적 자아개념형성과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은 교육요구도 순위가 더 높은 4사분면에 위치해 있었다. 이런 변화는 신입생 경우는 긍정적 자아개념형성과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에 대한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간의 불일치 수준이 낮고 그 중요도도 낮게 인식해 교육이 필요한 영역에서 배제되었으나, 재학생의 경우 불일치수준은 여전히 낮더라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대학생들은 신입생 때는 긍정적 자아개념형성과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과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며[37], 사범대 4학년 학생들이 학습자와의 관계형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현우와 조명희의 연구결과[27]와도 일치한다.

이는 적극적인 인간관계가 더 중시되는 대학생활과 다양한 진로 현장체험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을 확립하고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간에 진로개발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진로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더 나은 진로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즉, 비록 교육요구도 분석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따르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진로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첫째, 진로교육 내용에 관한 것으로 대학생들은 신입생 때는 긍정적 자아개념형성과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진로교육 내용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되어 그들의 욕구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진로교과의 이수시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학생은 신입생에 비

해 모든 역량의 중요성을 더 높여 평가하고, 모든 영역에서 재학생의 교육요구도가 신입생의 교육요구도보다 커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교육을 더 요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로교과 교육의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탐색, 진로계획, 취업준비 등을 주제로 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교과의 경우 교양과목 또는 일반선택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어[38] 저학년들이 주로 수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대상이 속한 D대학의 경우도 '진로설계와 자기개발'이라는 진로교과가 신입생 교양필수로 개설·운영되고 있는데 진로교육 요구도가 낮은 신입생 시기에만 한정하여 강의를 개설하기보다는 졸업하기 전에 언제든 본인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 시기를 유연하게 재설정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신입생 집단과 재학생 집단의 교육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Borich 계수를 통한 교육요구도 분석에서는 자칫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적인 교육요구도를 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그 요구도가 진정한 요구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다수의 교육요구도 분석 논문들은 Borich 계수를 통한 교육요구도 순위 분석에 머물러 있거나[12][24][25][31],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역량의 개수를 제한하는데 활용하는데 머물러[29][39-42], 연구결과가 주는 더 풍부한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각 역량들을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사분면에 표기하고 그 사분면의 특성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교육요구도 순위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각 역량 교육요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신입생은 실제로는 긍정적 자아개념형성과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에 대한 교육요구가 없지만 재학생은 긍정적 자아개념형성과 효과적인 대인관계형성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Borich 계수를 통해 교육요구도를 구하고 그 우선 순위로만으로 교육요구도의 비중을 논하는 것의 허점을 여

실히 보여준 것이다.

교육요구도 분석 정보는 교육콘텐츠 개발의 목적을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43-45], 본 연구에서의 교육요구도 분석 정보는 집단 차이를 이해하고 집단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진로교육의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D대학의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지 못하였으며, 횡단적 자료를 분석하여 동일한 학습자의 성장과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종단자료를 수집·분석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이정애, 최용용, “대학생의 진로목표추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pp.101-112, 2010.
- [2]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2011 학년도 대학생들의 견조사주요결과 보도자료, 2011.
- [3] 조경덕, 황매향, 김지영, 충청지역 대학생의 직업지도연구, 대전지방노동청, 2005.
- [4] 김성남, 변정현, “대학생의 구직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분석-대학생, 대학교 취업담당관,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pp.91-113, 2012.
- [5] 민춘기, “대학 교양교육에서 진로교육의 방향-수업 사례를 기반으로,” 교양교육연구, 제9권, 제4호, pp.73-109, 2015.
- [6] 윤영란,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진로교과목 수업과 진로집단상담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7] 이동혁, “대학 진로관련 교과목의 효과성 검증 연구 분석,” 상담학연구, 제11권, 제2호, pp.657-683, 2010.
- [8] 강미영, “대학생 대상 역량기반 진로교과목 운영

- 의 효과,” 취업진로연구, 제5권, 제1호, pp.1-27, 2015.
- [9] 한미희,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의 개발 및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2호, pp.95-113, 2011.
- [10]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지수 개발연구 (III): 대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 2014-21, 2014.
- [11] 임언, *역량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12] 정은이, “대학생의 진로 역량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요구도 분석,” 교육방법연구, 제26권, pp.629-657, 2014.
- [13] 전은화, “대학생 신입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기반 연구-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pp.103-122, 2013.
- [14] 전은화, 정효정, 서응교, “대학생 핵심역량 기반의 진로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293-318, 2015.
- [15] 한미희,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의 개발 및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2호, pp.95-113, 2011.
- [16] D. C. McClelland,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Vol.28, No.1, pp.1-14, 1973.
- [17] 최동선, 한상근, 임언, 정윤경, 이상준, 김나라, 외,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18]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명희, 정연순, 장석민,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 총괄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19] 정재원,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7호, pp.41-62, 2015.
- [20]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조지혜,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연구보고 09-R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 [21] 이지연,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01-11, 2001.
- [22] 임언, 장홍근, 윤형환,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23] 이재경,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18권, 제4호, pp.25-56, 2002.
- [24] 김경화,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6호, pp.359-379, 2012.
- [25] 박가열,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pp.181-198, 2009.
- [26] 이진남, “대학생의 구직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pp.199-225, 2012.
- [27] 이현우, 조명희, “사범대학 재학생의 학년별 교수자 역량 진단 및 교육요구도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pp.521-540, 2012.
- [28] 백순근, 함은혜, “중등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이 ‘교육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제20권, 제4호, pp.1-29, 2007.
- [29] 박영신, 이효림, “예비 유아교사의 학년별 핵심역량 교육요구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1권, 제1호, pp.343-366, 2016.
- [30] 노은호, “예비 유아교사의 교직 적·인성과 핵심역량 비교 분석연구,” 한국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05-221, 2013.
- [31] 김현순, 김지효, “대학생의 진로인식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651-659, 2016.
- [32] G. Borich,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1, No.1, pp.39-42, 1980.
- [33] 조대연,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 연구, 제35집, pp.165-187, 2009.
- [34] O. G. Mink, J. M. Shultz, and B. P. Mink, *Developing and managing open organizations:*

A model and method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otential, Somerset Consulting Group, Inc., 1991.

- [35] 김지효, 이정은, “IPA를 활용한 대학생의 진로교육 요구도 분석:진로결정상태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8호, pp.851-878, 2016.
- [36] 이정은, 김현순,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교육 요구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pp.1001-1027, 2016.
- [37]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71-91, 2007.
- [38] 김정희, *대학생 진로교육 실태 모니터링*,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5.
- [39] 이주호,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방안-서울·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11, No.10, pp.133-150, 2015.
- [40] 윤소희, 권순형, 강성주, 김인희, 김현진, 정순원, 계보경, “스마트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관리자 역량 요구 분석,” *교원교육*, 제29권, 제2호, pp.67-94, 2013.
- [41] 이대용, “구성주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좋은 수업에 대한 요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pp.295-312, 2016.
- [42] 양수진, 신다혜, 송영수, “대학생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H대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HRD연구*, 제17권, 제2호, pp.241-266, 2015.
- [43] 박정민, 정원일, “대학생의 보건 교육 욕구도 및 정신건강보건교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85-393, 2013.
- [44] 지윤정, 윤현서, “일부 해양경찰들의 구강보건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보건교육 요구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pp.322-329, 2015.
- [45] 박혜영, “항공관련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요구도 비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521-535, 2011.

저 자 소 개

김 현 순(Hyun-Soon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가정학사)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08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교수
- <관심분야> : 진로상담, 성장담, 학교상담, 노인상담, 위기상담